



핵심 역량을 총집결하여 세계적 건설기업으로

대림산업(주)

선진 기업 문화 정착

다사다난했던 무자(戊子)년이 저물고, 희망찬 기축(己丑)년 새해를 맞았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 차게 출발했던 지난 2008년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침체, 환율 급등 등 불안한 경제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겹쳐 국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까지도 뒤흔음질 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당사도 이러한 예기치 못한 총체적 난관을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으나 견실한 포트폴리오를 견지해온 내실 경영과 70년 역사의 저력을 기반으로 한 응집력으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자 모든 임직원이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대한민국 플랜트 역사를 선도해온 대림의 플랜트 부문은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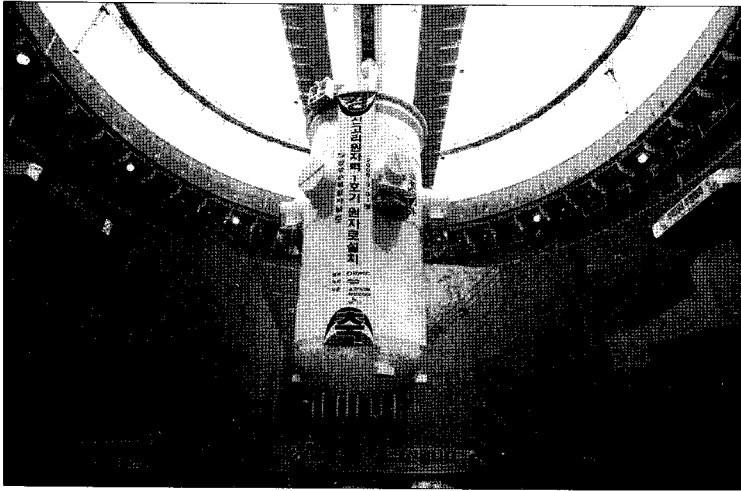
플랜트 사업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의 수주와 매출을 올리며 침체된 국내 경제 부양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건축 부문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 개발로 저에너지 친환경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여 「2008년 에너지 효율 아파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으며 불황을 정면 돌파하고 있다.

새해 전망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본격적으로 전이되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대림은 수많은 위기와 시련의 극복 속에서도 성장해 왔던 것처럼 위기에서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불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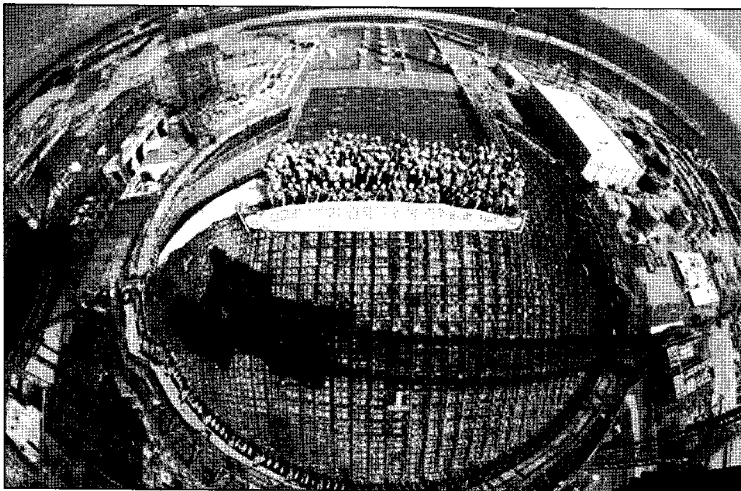
새해에도 대림은 가치 중시 경영을 최고의 신조로 삼아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에 성장 가능한 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사업 가치를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변화의 흐름에 통찰력을 갖고 우리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경쟁우위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과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일구어 낼 것이다.

또한 대림의 기본 덕목인 정도 경영을 앞장서 실천하여 사회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



신고리 1호기 원자로 설치



신고리1호기 원자로건물의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기념 사진

대림 경영 철학의 근간인 공개 경영을 기반으로 그간 추구해온 윤리 경영이 더욱 성숙되어 이에 입각한 변화와 혁신 추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선진 기업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새해 원자력 사업 계획

플랜트 건설 산업을 주도해온 대

림은 특유의 정도를 걷는 성실 시공으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건설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새해에도 신고리 1, 2호기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핵심 기술 인력의 지속적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신규 원

전 사업, 설비 개선 공사 등 신규 Project 수주에 적극 임할 계획이며 국내 건설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해외 원전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 신고리 1, 2호기 주설비 공사

올해 신고리 1호기는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시운전에 돌입해 10월에는 상온 수압 시험을 하게 되고, 2호기는 4월 원자로 설치, 12월 초기 전원 가압이라는 중요 공정을 앞두고 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건설 일정의 피크를 지나게 된다.

원자로 내부 구조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1호기는 빈틈없는 관리와 마무리로 적기에 계통 인계를 완료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운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내 원전 최초로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한 1호기 RCL 자동 용접을 더욱 개선하여 2호기에 적용함으로써 완벽 시공은 물론 신뢰성을 높이고 공기 단축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핵심 작업이 수행될 2호기의 공기 단축과 완벽 시공을 위해 우수한 시공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도와 합리적 사업 수행을 실천해온 대림은 공동 도급사의 장점과

역량이 합리적으로 응집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신규 원전 사업

대림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 우선의 시공과 발주처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신뢰성 높은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핵심 기술 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원전 공사를 수행해 왔다.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의 소내 정전 대처 설비 공사에도 참여하는 등 원전 건설 전 분야의 수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림은 울진 1, 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공사 입찰을 진행중이며, 금년에 발주 예정인 신울진 1, 2호기 주설비 공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건설업계의 선두 주자로서의 당사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국가 기간 시설 확충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대명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3. 해외 원전 사업 추진

고유가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세계가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이 그간 쌓아온 안전

성과 경제성 우위로 인해 다시 주목받으며 제2의 원자력 부흥기를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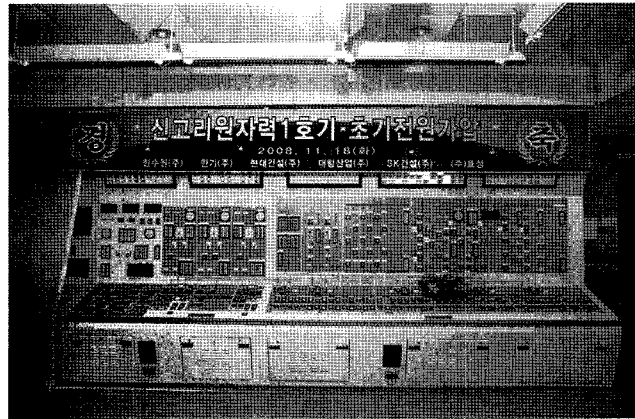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지속적인 신규 원전 건설 실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업계에 그간의 실적과 경험을 세계 시장에 유감없이 펼쳐 보일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차세대 리더로서 한국 원전 건설의 해외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위상의 건설 기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원전 시장 개발에 적극 참여해온 대림은 해외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원전 수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맺음말

플랜트 건설로 쌓아 올린 명성과 원전 건설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대림은 앞으로도 부단한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과 국가



신고리1호기의 초기 전원 가압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구자적 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올해는 대림산업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건설업계의 역사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어나아가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국민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대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총체적 불황 등 주어진 환경은 비록 우호적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새해를 시작한다.

새해에도 모든 원자력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